

단국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2차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1] 다음 제시문은 삶의 가치와 인생 설계와 관련된 글들이다.

- 1) [가]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문구를 찾고, ‘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 2) [가]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서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가] (앞부분 줄거리) 미술 학도인 나는 헤인과 헤어진 후,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심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은 6·25전쟁 당시 불행한 체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던 중, 어느 날 소녀를 대상으로 한 수술에서 실패한 뒤, 병원 일을 소홀히 하면서 소설을 쓰게 된다. 우연히 형의 소설을 읽게 된 나는, 소설 속에서 6·25 때 낙오병이었던 형이 함께 낙오한 김 일병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여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소설에서 형이 김 일병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내용을 완성해 놓았지만, 그것을 읽은 형은 픽션을 가미하여 김 일병을 버리고자 했던 오관모 이등 중사를 처치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와 헤어진 헤인이 결혼하던 날, 형은 술을 마시고 그동안 썼던 소설을 불태우며 내게 ‘병신과 머저리’라고 외친다.

“이 참새가슴 같은 것, 뭘 듣고 있어. 썩 네 굴로 꺼져!”

소리를 켜 지르는 통에 나는 방으로 쫓겨 들어오고 말았다.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 왔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은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 왔다. 그는 그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 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던 형의 내부는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형은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형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관모의 출현이 착각이든 아니든, 사실로서 오는 것에 보다 순종하여, 관념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형은 그 아픈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형을 지금까지 지켜 온 그 아픈 관념의 성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만한 용기는 계속해서 형에게 메스를 휘두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창조력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멍하니 드러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헤인의 말처럼 형은 6·25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患部)는 어디인가. 헤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하략)

출처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나] 달리는 기차의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면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를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자신만 들여다본다 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인류가 자신을 살피게 된 것은 바깥 세계를 탐구한 것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고, 개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 자신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알 수 없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가 그의 책 <나와 너>에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가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 하였다.

출처 : 손봉호, 「나는 누구인가」

[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명이 오래가는 가치일수록 그것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또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 예컨대, 예술과 사상은 오랜 수명을 누리는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본래적(本來的) 가치를 지닌 목적으로서의 성격도 강하다. 한편, 금력과 권력은 예술이나 사상에 비하여 수명이 짧으며, 큰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그것들은 본래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그것들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본래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나를 위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하는 물음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개인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삶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되도록 많은 가치가 실현되도록 행위하며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생명이 길고 여러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김태길, 「삶의 보람」

[문제 2]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구하기에 필요한 정보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나]와 [다]에서 제시된 방식의 유용성을 비교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의 양, 또는 개인별 자원의 총합 자체는 한정적일지라도 다른 구성원들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가정하며, 사회적 관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자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에 의거하여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개인이 활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연계 속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행위 능력이나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에 따라 그로부터 개인이 획득하는 자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약한 연결망’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나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강한 연결망’은 유사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배타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강한 유대를 반영한다. 이는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처럼 정서적으로 밀접하고 끈끈하게 묶여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된다. 관계망을 형성하는 개인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대신 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에 지속적인 상호 교환성과 강한 정서적·실질적 지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한 유대감은 외부 그룹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협성으로 왜곡될 수 있다.

[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개인의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 형성을 주도하고, 효율적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하여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한다. SNS는 이용자의 사진 보기, 메시지 보내기, 글쓰기 기능을 비롯하여 다른 사항을 찾을 수 있는 검색과 같은 기술들을 제공한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트위터 역시 자신의 팔로어를 통해 다른 트위터 이용자와 간단하게 관계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SNS는 이용자로 하여금 유지 가능한 약한 연계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페이스북(Facebook)의 ‘친구추천’ 기능이나 트위터의 리플, 팔로어 리스트 기능은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에 걸맞는 이용자에게 관계 맺기를 시도하거나 관계망을 통제로 옮겨와 약한 연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학연·지연·혈연의 경계를 벗어나 폭넓고 유연한 사회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 제임스 콜만(James Coleman)은 개인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원 간 형성되는 ‘신뢰’를 통하여 설명한다. 신뢰는 개인의 기대와 의무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반의 위험을 감소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서로 협력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주관적 믿음으로 개인·조직 간 교환에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신뢰에 바탕한 사회적 관계는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양질의 의사소통과 암묵적 지식의 공유로 인해 필요한 자원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할머니가 수십 년간 스스로 습득한 요리 비법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전파되기도는 며느리와 딸에게 은연중에 전수되는 것은 강한 연결망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가까운 친척이나 오랫동안 알던 지인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를 우리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도 이러한 강한 연결망의 효과일 것이다.

[문제 3]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 및 [자료]를 활용하여 [라]의 현상을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샌델이 우려하는 바는 시장만능주의가 가져오는 도덕의 상실과 공동체의 파괴에 관한 것이다. 시장 논리 없이 잘 굴러가던 영역에 일단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윤리는 타락하고 도덕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생명, 사랑, 우정 등 인간 사회의 소중한 덕목이 금전적 교환의 대상이 되면서 시장의 논리에 함몰되어 위협받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더욱 확연해지고 불평등이 표면화된다. 일상의 영역에서 돈에 의해 차등 대우가 이루어진다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삶 속에 있는 좋은 것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는 그것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면 시장에 속한 영역은 무엇이고, 시장에 속하지 않은 영역은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재화의 의미와 목적,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샌델은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구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각자의 도덕적,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공개적으로 숙고, 토론하는 것을 시장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책으로 제시한다.

[나]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신축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어떤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제 시장이 형성되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 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면 지구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수반되어야 할 마땅한 도덕적 죄책감을 덜 느낀다.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과도한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해 벌금을 부과 받으면 사람들은 그 기업이나 국가가 무언가 그릇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다. 반면 오염 행위에 대해 요금을 낸다면 그것은 정당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될 뿐이다.

[다] 국회는 지난해 말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당초 만 5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려던 전면 무상 교육 대상에 0~2세를 포함시켰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면서부터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던 엄마들마저 혹시나 손해 볼세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 보육원에 보내면 소득층 상위 30%까지도 보육비가 지원되다 보니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몰려 소요 예산이 급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0-2세 영아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 예산이 바닥났다고 두 손을 들자, 올해는 모자라는 지자체 지원금 6천200억 원을 정부 예비비로 메워주는 방안을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다. 0~2세 아이는 집에서 부모가 스킨십을 하면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스튜디오에서 비싼 입장권을 사면 줄을 서지 않고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일부 교도소는 수감자들이 추가 비용(1박 82달러)을 지불하면 호텔방이나 항공기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듯이 감방을 업그레이드시켜 준다. 일부 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돈을 내면 다인승차로로 달릴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는 15만 달러다.

[자료] 아래는 가상의 자료이다.

A시에서는 출근 시간에 통행량이 많은 도시고속도로 10km 구간에서 다인승 차량 전용 차로 (이하 '전용 차로'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1인승차 차량 운행자도 월 30만원의 이용권을 구입하면 이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 <표>는 위 구간의 연도별 출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과 평균 통과 소요 시간을 조사한 통계 자료이다.

<표> 출근 시간대 다인승 차로 및 일반 차로의 통행량과 통과 소요 시간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다인 승차로 통행량	203	225	256	280	350	430	490	585	652
이용권 구입 차량 통행량	-	-	-	-	38	42	65	82	91
일반 차로 통행량	1,420	2,315	2,532	2,725	2,921	3,235	3,494	3,623	3,812
총 통행량	1,623	2,540	2,788	3,005	3,309	3,707	4,049	4,290	4,555
다인승 차로 평균 통과 시간	12분	12분	12분	12분	12분	12분	12분	12분	12분
일반 차로 평균 통과 시간	12분	15분 30초	19분 20초	22분 30초	27분 30초	35분 10초	44분 40초	48분 10초	52분

문제 1

<출제 의도>

- 1) 제시문 [가]는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라는 소설로, 미술 학도인 화자와 6·25전쟁의 아픔을 갖고 있는 형을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작품이다. 화자인 나는 관념적인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인인 헤인과 헤어졌으며, 형은 극한 상황에서 동료를 구하지 못한 책임 의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형의 아픔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데 비해 나의 아픔은 막연하고 관념적이다. 제시문에서는 형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이 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중심으로 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한다.
- 2) [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서 제기한 문제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나=자기,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 '자신을 들여다 보는 일'과 '다른 것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다]에서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찾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 편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논의한 것은 '자아의 중요성'이다.
이 문제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요약은 텍스트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다. 요약의 방법은 내용 이해, 재구성의 원리, 자기 표현의 원리로 정리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가] 구인환 외(2010), 『문학』 (상), 교학사.
[나] 박영목 외(2005), 『독서』, 교학사.
[다] 최지현·김영근(2005), 『독서』, 천재교육.

<평가 기준>

- 1) 첫째는 주제를 드러내는 문구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용기(가장 적절)
 - 관념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 힘(적절)
 - 아픈 관념의 성(적절)
 둘째는 '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형은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자가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한 죄책감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
- 2) 첫째는 [가]에 나타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함.
 - 극한 상황에서 발생한 죄책감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용기

둘째는 [나]와 [다]에서 제기한 문제의 공통점을 찾아 재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함.

- [나]에서 제기한 '자기 이해'는 두 가지 방법(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자기반성)과 '너' 혹은 '그것'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을 이해함.
- [다]에서 제기한 '자기 이해'와 삶의 목표 정하기의 상관성을 이해함.

<예시 답안>

- 1) [가]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문구는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이다. 형은 6·25 때 낙오병으로 함께 낙오한 김 일병을 보호하지 못했던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 죄책감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치유될 수 있다. 형은 분명히 그러한 용기를 갖고 있었다. 그 아픔은 형이 오관모를 만남으로써 현실화되었고, 형은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갖게 된 것이며, 이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적인 아픔과 대립된다.
- 2) [가]의 현실 인식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자기 인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다른 사람' 또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치는 수명이 오래가고 혜택의 범위가 넓으며 목적성을 띤 것이 올바른 가치에 해당한다. 생명이 길고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치를 고려하여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자기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의 하나이다.

문제 2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주어진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일자리 구하기를 위한 정보 탐색이라는 현실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일상적인 삶에서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타인과의 네트워크를 사회적 연결망(약한 연계망과 강한 연계망)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평가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제시된 개념과 설명을 현실 사례(일자리 구하기)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의 개념과 현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자료 출처>

[가] [다]: 마크 그라노베터(Mark Granovetter), 유홍준·정태인 역(2011), 『일자리 구하기 (Getting A Job)』, 아카넷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Albert-Laszlo Barabasi), 강병남·김기훈 역(2002), 『링크(Linked)』, 동아시아

<평가 기준>

- 1) [가]에서 제시된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함
- 2) [나]와 [다]에서 설명한 약한 연결망과 강한 연결망에 대한 각각의 유용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3) [나]와 [다]에서 제시된 두 가지 사회적 연결망의 유용성을 일자리 구하기라는 현실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예시 답안>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일자리 구하기에는 유대감의 정도에 따라 약한 연결망을 활용하는 경우와 강한 연결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약한 사회적 연결망은 우선 평소에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SNS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많은 양의 취업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다. 결국 약한 연계망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정보의 양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비하여 강한 연결망은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다. 또한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취업 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특히 얻어지는 취업 정보들이 자신과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본인의 의지보다 주위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연결망은 개인이 추구하는 직업의 종류와 주어진 환경 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3

<출제 의도>

과거에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소비 영역에 시장논리가 도입되고 있다. 심지어는 사법체계, 국가보안에서 임신 출산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사회적 재화에 시장논리가 도입되고 있는 선진국의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마이클 샌텔의 책 『왜 도덕인가?』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가 시장의 무차별적 팽창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문제는 제시된 글의 주장을 이해하고 관찰된 현상에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 [가]는 시장의 과도한 팽창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샌텔의 주장을 요약하였으며, 제시문 [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공해배출권 거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밝히고 있고, 제시문 [다]는 무상보육의 확대로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보육시장이 확대되어 정부 예산 부족과 가정의 보육기능 취약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 [자료]는 전용차로 이용권 판매 후에 일반차로의 평균 통과시간은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시장 논리의 도입이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가],[나],[다]와 [자료]는 시장화가 적절하지 아니한 영역에 시장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들은 근거로 시장화 사례를 열거한 [라]를 비판하도록 하는 것이 본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자료 출처>

- [가] 정성희, 돈이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 『동아일보』, 2012.6.2.
이현우, 시장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주간경향』, 974호.
- [나] 마이클 샌텔, 안진환·이수경 역(2010), 『왜 도덕인가?』, 한국경제신문
- [다] 만0~2세 양육수당 모든 계층에 지급... 보육료는 맞벌이 등 선별 지원, 『한국경제』, 2012.7.23.
육아휴직, 출산휴가 늘리면 보육예산 줄일 수 있다, 『조선일보』, 2012.7.6.
- [라] 정성희, 돈이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 『동아일보』, 2012.6.2.

<평가 기준>

- [가][나][다]와 [자료]는 공통적으로 시장만능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가][나][다]와 [자료]의 핵심적 주장 내용 (① 공동체의 파괴 ②도덕적 부패 ③사회적 비용의 증대)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함.(20점)
 - [라]의 사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앞에서 제시된 글의 논점에 근거해서 밝히고 있는가를 평가함.(20점)

<예시 답안>

[가], [나], [다]에서는 시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수용될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 사회적 위화감, 사회적 비용의 증대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라]에 나타난 네 가지 상황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앞에서 비판한 경제 우선주의, 곧 시장 만능주의가 적용된 사례라는 점이다. 비시장적 영역의 시장 경제화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에서 제시한 네 가지 예들은 경제적 부담에 따라 향유자의 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비용 지불에 따른 대가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는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행위는 단순히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어떤 행위는 사회적 위화감이나 환경 파괴와 같이 사회적 정의를 위배할 수 있다. 따라서 비시장적 요인의 시장화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난 이유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또는 세계적 관점에서의 국가 간의 정의 실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의 비판 정신이 요구된다.